

제 22 장 예루살렘 회의의 결의 사항

1. 기독교의 복음이 중앙 소아시아로 들어갔다는 사실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유대인 기독교인들보다 많아질 것을 의미했습니다. 기독교가 이방 문화와 만나면서 영향을 주고 받았고 기독교는 자신들의 교리와 행위를 보전하기 위해 주의해야만 했습니다.

첫째로, 이방 문화와 기독교 교리가 만나면서 혼합주의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상(예를 들면 메시아 사상)을 이해하고 있어야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을 터인데 이방인들에게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유대적인 사상은 낯선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였고 이방인들에게는 외국어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쓰는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인데 이것은 메시아가 가지는 뉘앙스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라는 말도 선지자들의 환상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나 이해할 만한 개념이었습니다.

분명 이방인들에게도 이 히브리 단어들에 대체할만한 헬라어 단어(주님, 영생 등)가 있었지만 만약 그 헬라 단어들로 대체한다 해도 기독교가 말하고자 하는 본래의 의미 그대로 전달 되었다고 보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세계는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기독교인들도 예수를 그러한 신으로 경배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체 헬라어였던 ‘영생’은 그 당시 신비 종교들 사이에서 쓰이던 개념으로 보이기 쉬웠고 기독교 본래의 의미를 나타내기 힘들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과 이미 유대교인이었던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할 경우 그들은 이미 율법의 기초가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적응하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초가 없는 이방인들이 일련의 훈련이나 시련 없이 이교도적 생활 방식으로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면 기독교의 윤리 기준이 굉장히 떨어졌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율법으로 윤리 훈련을 시키고 자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인을 보냈습니다.

이때 이들이 모세의 법에 따르는 할례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는 다른 유대인의 풍습들보다 더 순복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삼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의 논쟁도 이와 관련한 것인데 힐렐 학파는 이방인 개종자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들이 받은 세례는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삼마이 학파나 필로 등의 주장은 의식 율법(할례)을 그대로 지킬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로 부각되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 성도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던 중,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이들이 찾아오자 급히 피함으로 위선적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방 성도들과의 식탁 교제를 금하는 율법

을 의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방 식탁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었고 베드로가 이 율법을 어겼다는 소식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물의를 빚을만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자신은 이방인과의 식탁 교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유했겠지만 예루살렘에 일으킬 물의를 방지하고자 이방인 성도들과 식사하는 것을 갑자기 중지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안디옥 이방인들에게 자신들은 이류급 성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아내게 하였고, 바나바 또한 외식에 미혹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외식, 즉 베드로와 바나바가 이방인과의 교제를 끊는 것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상황이 불리할 때 안 하는 외식, 기회주의를 책망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결국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용서 받는 구원의 복음을, 율법이 요구하는 할례까지 받아야 완벽한 구원을 받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위험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떡을 떼는 표현으로 인해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가 공통적 신앙심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이 불가능했다면 기독교 공동체의 통일성은 위험에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2. 이 논쟁은 예루살렘 회의를 소집하기에 이릅니다. 바나바와 바울, 안디옥 교회의 대표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그리고 장로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개종한 바리새파 중의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 개종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이와 반대였습니다. 이는 야고보의 변증 덕택이 큼니다. 이미 무할례 이방인 성도들에게서 영적인 여러 증거가 나타나고 있었으며 복음 그 자체가 믿음 이상의 할례 따위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큰 증거였습니다. 또한 이방인의 선교는 성경의 예언인 것을 야고보가 잘 지적했습니다. 결국 할례 문제는 이방 선교의 발전에 더 이상 방해 거리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 후에 유대인 성도들과 무할례자 이방 성도들 사이의 식탁 교제에 있어서 연합하는 문제가 이어졌습니다. 즉 수백 년 동안 식사법, 정결법에 익숙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에서 원활히 연합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적으로 금하는 여러 것들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를 금하는 준행 사항들이 요구되었습니다. 준행 사항들은 우상숭배와 간음, 피흘리는 짐승의 살을 먹는 것을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본질에 대해선 타협하지 않았지만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선 융통성 있었던 바울은 이를 환영했습니다. 이방 성도들의 음식 먹는 관례가 연약한 유대인 성도들의 양심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라면 그는 강요가 아니라 기독교의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써 자발적으로 금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후에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불의한 간음 사건에 대한 바울의 반응 보면 예루살렘 회의에서 의결된 간음 금지 조항에 대해서 긍정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이방인 속에서는 이방인으로, 유대인 속에서는 유대인으로 사는 등 생활 방식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이런 문제는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전통적 유대교에 대한 무관심한 처신은 다른 유대인 신자들로 하여금 그의 본을 따르도록 고무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회의의 의결 사항이 전달된 지역에서 이방인 성도들이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잘 따르도록 권장하였습니다.